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정면 충돌

서완석 의장 "설문조사 공정성 결여...이전 장소도 밀어붙여" 주장 시 "이전·폐지 한 문항 묶은 건 적절...지나친 확대 해석 안돼" 반박

민선 7기 여수시가 시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상 낭만포차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수시의회가 조사 객관성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밤바다와 함께 여수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인 여수낭만포차 이전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의 랜드마크인 낭만포차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50.9%)가 현 위치에 존치하자는 의견(39.8%)보다 많았다. 이전·폐지 응답자 중 이전은 42.2%, 폐지는 8.7%였다.

여수시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민선7기 주요공약 사업인 낭만포차 이전을 본격 추진 중이다.

코리아 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 포인트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도성 질문과 설문 기본인 '복합 질문의 금지'를 위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설문조사 서두에 '낭만포차는 여수 관광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지만, 교통문제, 소음, 무질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해 응답자의 인식을 규정 또는 유도했다"며 "낭만포차 이전과 폐지에 관한 질문도 하나로 묶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낭만포차 이전은 39.8%인데 반해 존치는 42.2%로 오차 범위 내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전 장소로 제시한 거북

선대교 하부 공간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시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대표 관광 콘텐츠인 낭만포차 이전 문제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때 대해서도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시민이 내용의 깊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서완석 의장의 기자회견 전 배포한 소명 자료를 통해 "낭만차 이전 또는 폐지를 한 문항으로 묶어서 통계 분류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었다"며 "준칙과 이전이 오차범위라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낭만포차 이전 대상지는 현재 형성된 상권 범위 내에 있어 상가와 펜션 등 동선이 연결되어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자생단체 대표들도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2억여 원을 들여 처음 문을 연 낭만포차는 현재 18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여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큰 역할을 해냈다.

반면 낭만포차가 펼쳐진 종포해양공원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쓰레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여수시는 권오봉 시장의 주요 공약인 낭만포차 이전에 대해 최근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 낭만포차 이전·폐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50.9%로 나오자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본예산에 편성된 이전 사업비(5억원)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 이전 대상지인 거북선대교 하부 부지에 기반시설을 착공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동부권 위기청소년들이 예술치유 과정을 마무리하는 음악 공연을 펼치며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 청소년 위한 '마음톡톡 콘서트'

순천지청·이화여대 찬조 무대 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도 지역 사회공헌 활동 앞장

여수국가산단 유일 정유사인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GS칼텍스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전남동부권 내 보호관찰과 (선도조건부)기소유에 처분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직업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남동부권 위기청소년 마음톡톡'은 전남동부권 내 보호관찰과 (선도조건부)기소유에 처분된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콘서트는 올 한해 마음톡톡 예술치유에 참여한 청소년 48명 중 23명이 5개 팀으로 나눠 직접 만든 자작곡을 노래하고 악기 연주 실력을 뽐냈다.

순천지청, GS칼텍스, 이화여대는 찬조 무대를 꾸몄다.

순천지청 소년담당 검사의 노래와 함께 GS칼텍스 사내 음악 동호회인 킥스(Kixx)밴드, 이화여대가 청소년들과 호흡을 맞춰 합동 무대를 펼쳤다.

GS칼텍스는 이날 마음톡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앞서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관계자들은 15주 동안 아이들에게 작사·작곡, 기타·키보드 등 음악을 가르치며 예술이 가지는 치유의 힘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꾸준히 도왔다.

GS칼텍스는 지난 2016년 순천지청 등과 '전남동부권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지원 업무협약'을 처음 체결했다.

시행 첫 해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처분된 여수 지역 위기청소년 119명이 악기 연주, 작사·작곡 교육 및 여름캠프 등의 예술치유를 받으며 재범의 유혹을 이겨낸 바 있다.

GS칼텍스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음톡톡'은 지금까지 1만 5000여명의 아이들이 전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역대표 기업으로서 산·학·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예술치유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사랑나눔에 앞장서면서 지역 대표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충무동 '그림으로 보는 난중일기' 벽화 인기

여수시 충무동에 '그림으로 보는 난중일기' 벽화가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림으로 보는 난중일기' 벽화 거리는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매영성 서문 벽화체험길의 일부 구간으로 조성됐다.

총길이 92m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에 부임해 수군을 훈련시키고 전쟁준비를 하는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난중일기 벽화는 앞서 조성된 이순신 어

록 벽화길과 어우러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무동 벽화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구간에 '매영성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을 주제로 벽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근철 충무동장은 "원도심 골목이 이순신 장군의 얼을 느낄 수 있는 명품거리로 변모하고 있다"며 "충무동 벽화거리가 여수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충무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그림으로 보는 난중일기' 벽화를 감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산타원정대 행사...맞춤형 선물 전달 잔잔한 감동

여수시가 지역 아동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산타 원정대 행사를 실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거북선공원 야외무대에서 여수시와 어린이재단, 여수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여수 산타원정대 행사'가 열렸다.

이번 산타원정대 행사는 여수시와 지역 기업, 단체 등이 어려운 환경의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재단 주요 사업이다.

올해 산타 행사에는 LG화학 여수공장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LGMM, 휴켄스, 프렉스에어로코리아, 어린이재단 여수 후원회가 아동들을 위해 1200여만 원을 후원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소원 306개를 들어줬으며 내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70명에게 책가방도 선물했다.

시는 산타원정대 행사 전 40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미리 원하는 소원카드를 받아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몸이 불편한 할머니께 드릴 영양제를 선물 받고 싶다는 아이의 소원카드가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13일 거북선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8 여수 산타원정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21일까지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 모집

여수시는 21일까지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을 모집한다.

행정인턴제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행정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 겨울방학 때 처음 운영됐다.

지원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2월 10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여수시민으로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대학원생과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평생교육원생, 기 참여자 등은

제외다.

지원 할 때는 우선선발(60명)과 일반선발(90명) 중 선택해야 한다. 우선선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국가유공자·다자녀(3명)가 정 자녀, 여수시장 표창 수상자 등이다.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주 5일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광주전남 산학연 클러스터의 심장! 미래 대한민국의 실리콘 벨리! R&D특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성공신화를 이루세요!

EDU & ECO

- 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고가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 연구개발 특구로써의 풍부한 혜택(연구비 지원, 세제혜택 등)
- 영산강변 친수공원, 산책로, 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등 쾌적한 자연환경

INDUSTRY & RESEARCH

- 1,2단계 946개 기업유치에 이은 3단계 조성으로 더욱 커지는 비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200여개 연구 및 지원기관 위치

TRAFFIC & LIFE

-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광산IC 5분), 공항(무안공항 40분내), 고속철도(KTX송정역 20분내), 북광주IC(나주혁신도시 30분), 도시철도 2호선(첨단3지구 경유)
- 가까운 첨단1·2지구, 양산·일곡지구 등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

FUTURE & VISION

-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 3단계 개발로 미래첨단 4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
- 인근 나노산단(전남·장성), 하남·전곡산단(광산구)과 연계를 통한 광주, 전남 지역간 상생발전

문재인 정부 광주전남 상생공약! 첨단3지구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로!!
→ 국립심혈관센터,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의료산업 클러스터, 포토닉스케어, 친고령산업집적단지